

“이렇게 좋은 트램 빨리 놓이길” 트램 오른 주민대표들 ‘엄지척’

국내 트램 산실 청주 오송기지를 가다

“우리 남구에 트램이 놓인다고 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길은 안 막힐지 안전은 또 어떨지... 그런데 직접 타 보니 정말 편하고 좋네요. 빨리 트램이 설치돼 교통난도 해결하고 도시 발전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 무가선 저상 트램(노면전차)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 착수를 앞두고 남구는 지난 14일 남구 주민대표들과 함께 청주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기지로 무가선 트램 시험선 시설 견학 및 트램 시승 행사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남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간부들과 주민을 대표해 17

무가선 저상 트램 시설 견학·시승행사

“안전·편리성 등 트램 장점 실감” 이구동성

통해 트램이 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륙도선 실증구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객재호 무가선트램연구단장은 “차량 포화 상태인 용호동은 현실적으로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며 “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트램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단은 국내 유일의 트램 시험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12년 무가선 트램을 제작, 6만5000km가 넘는 시험주행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트램의 외형이나 내부는 경전철과 흡사하다. 승차감이 좋아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따라 올 수 없는 트램의 최고 장점은 ‘초 저상화’에 있다. 트램은 도로 노면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객차와 바닥의 높이가 같아 승하차시 마치 자동문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또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어 교통약자에게 대단히 유용하다. 트램은 시속 30~40km로 정속 주행하지만 ‘우선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각광받는다.

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탓에 안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객 단장은 지하철이나 철도와 달리 트램은 필요할 경우 마그네틱(자력)으로 급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험단이 탑승한 시험선은 제작된 지 7년이 넘어 오륙도선 실증구간에 투입될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가 차량 상부에 놓이는 등 내·외부가 최신 모델로 개량될 예정이다.

객 단장은 “노선 전체가 무가선(wireless)인 트램은 오륙도선이 세계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오륙도선이 성공하면 그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승(乘)’. 트램을 처음 타 본 주민대표들과 남구청 간부들은 트램이 왜 선진국에서 가장 유용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게 됐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무가선 저상 트램 시승에 앞서 객재호 무가선트램연구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구직·창업 희망자 9월 27일 남구청으로 오세요

2019년 남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45개 기업 참여... 적성검사 등 부대행사도 마련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2019년 남구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9월 27일(금)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사람을 키우는 힘! 내일을 향한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직접 참가기업 25개, 간접 참가기업 20개 등 총45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메인행사인 채용면접관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One-Stop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간접 참여하는 업체 부스도 운영하여, 원하는 기업에 구직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를 통해 간접 참여한 업체로 구직 신청서를 보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고용플러스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한 중앙년층 취업상담,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등을 병행 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지문 적성검사, 증명사진 촬영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취업

관련 자신감을 심어줄 계획이다.

박람회 운영 시간은 14시~18시까지이며, 현장에서 구직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에 통반별로 부착되는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참고하고, 그 외 궁금증은 일자리경제과(☎607-4295)로 문의하면 된다.



인산인해를 이룬 2018년도 남구 일자리박람회 모습.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홍보·체험 등 행사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등 자립과 육성을 돕는 ‘2019년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이 9월 27일(금) 11시부터 17시까지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남구 뿐만 아니라 타구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13개 업체, 타구 사회적경제기업 7개 업체 등 총 20개

업체가 참가한다. 커피 등 상품 판매 13개 업체 그 외 홍보 및 체험 위해 7개 업체가 참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연구원 및 부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상품 판매등의 판로개척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부대행사로 20개 업체 중 10개 업체 스탬프 도장을 본부에 가져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남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며 종전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재정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소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이 많았던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정절차 및 판로개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남구청 일자리경제과(☎607-4295)로 문의하면 된다.

9월 17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9월 17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2007.1.1.~2019.8.31. 출생) 어린이로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회 접종

자는 9월 17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고 1회 접종 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의 소아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607-3333

〈인플루엔자 접종 관내 위탁 의료기관 명단 2면〉

나눔이 있어 더 행복한 추석

추석 앞두고 저소득계층 3378세대에 1억7600만원 전달

남구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주민과 함께 하는 ‘흔한 추석명절 보내기’ 사업을 전개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저소득주민 3,378세대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1억7600여만원의 성금·품을 지원한다. 보훈가

족에게는 쌀 10kg, 홀몸노인 및 한부모 등 저소득가구는 명절위로금이 전달된다. 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198세대에 생필품세트를 후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동명불원, BNK금융그룹, 한국거래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방과 후 아이 맡겨야 할 때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세요

용당초등학교 인근 개소

소득 상관없이 이용 가능

아동의 자발적 성장을 돕고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남구에 문을 열었다.

‘오랫차차방과후’로 이름 붙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용당초등학교 인근 건물 1층에 마련돼 지난 8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규모는 118.79㎡로 월요

일~금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만6세~12세 아동을 돌본다. 20명 정원에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된다.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방과 후 단순 돌봄을 넘어 간식(또는 식사) 제공, 숙제·독서 지도,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 위치 : 남구 신선로 329번길 20, 622-0801

지 면 안 내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3면

남구관광 새 엔진 옹호부두

우암동 도시숲의 기묘한 공존

4면

6면

자매도시 함양을 가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모든 것

7면

10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